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2주일
제36권 40호(다혜) 2016년 8월28일

[묵상]



<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삼척이 어디 있는가?"

삼척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겸손(영:humility, 라:humilitas)이란 단어는
땅(라:humus)에서 유래되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생겨먹은 것 자체가 흙이었으니,
인간 본래의 모습은 곧 겸손인 것이다.
따라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인간도 아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느님께도 인정받는 영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알고 봉사할 줄 알며,
참으로 겸손한 자만이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다."(집회 3, 28),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매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원)이순자 레지나, 이용식 베드로, 손영달 & 강소아, 전길례 모니카
미사	(생)김준서 레오, 허진 요엘, 윤비아 비아
주일 낮 미사	(원)이정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서성용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율리안나, 김차욱 요셉 & 김복남 마리아, 김동오 요아킴, 배정환 베드로 & 전길례 모니카, 박영식, 김 리드, 이효희 마리아 & 신현태, 이사범 로벨도 & 윤주경, 김중환 야고보, 박문규 프란체스코, 김애자 테레사, 원용선 요셉 & 윤귀순 안나
	(생)박영식 안드레, 박정미 클라라, 조혜윤 테레사 & 조혜진 리디아, 손석 스테파노, 송기분 수산나, 김양금 안나, 황용재 베드로, 임명희 겐마, 최태훈 아오스딩, 이지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17-18,20,28-29

화답송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주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18-19,22-2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복음 루카 (Luke) 14,1,7-14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4. 천주교와 타 사상의 만남(1876-1945년)

4-3. 교회와 공산주의

일제 통치 아래 조선 교회는 통일 전선 이론에 무관심했으며, 타 종교나 정치 집단과 어떠한 연결 고리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출판물들이 펼친 반공주의적 논설들은 식민지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체성에 입각한 공산주의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론적 입장에서 전개된 그리스도교적 비판이었다. 당시 교회 지도층 일부에서는 일제가 대륙 침략 정책을 호도하기 위하여 제시한 반공주의 정책과 교회에서 주장하는 반공주의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일제의 반공주의 정책에 찬동하거나 묵인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과정에서 일제의 침략 정책에 대한 교회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한국 교회가 형성해 놓은 반공주의적 태도는 1945년 이후 한국 교회사 전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공산주의 소비에트 러시아 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교회의 반공주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북한 교회는 오랜 동안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항하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이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도 일제의 지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된 반공주의적 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4-4. 천주교와 신사 참배

일제는 대륙 침략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강력한 '일본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사 참배 강요였다. 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통적 종교 의식이라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근대 국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 정신의 기초로 강조되었으니, 신사 참배에는 국민 의례적 성격이 추가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일본과 그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호전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여기서 조선 천주교회의 신사 참배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 당국은 신사 참배가 단순한 '애국적' 의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신사에서 거행되는 의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神道) 의식과 국민의례의 성격이 혼재하고 있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8	208	217
봉헌	256	256	269
성체	307	307	309
파견	218	218	218

겸손하려 노력하기보다 주님사랑의 축복에 머물면 더 겸손해 지는 삶

하느님의 초대와 축복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 초대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의 움직임을 분별해 주시는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대는 하느님의 사랑이자 주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길이 됩니다. 이 부르심이 축복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께 삶의 초점을 두고, 분별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 충만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현존이 자기 자신 안에서 강화되면 겸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후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가 은총임을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더욱 겸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병들고 눈먼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이 된 「시몬의 집」은 초창기에 결핵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저에게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프란치스코의 집」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또한 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는 것이 삶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자신 안에서 커져갈 때 더욱 겸손해지는 삶이 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 나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도 중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자주 만나면 그분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는 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3-14)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금자 데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동안 조정되었던 학생미사가
9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 시간 : 7:30, 9:30, 11:00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8월27일(토) 오후 6시에 3명의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김준서 레오, ♡윤비아 비아,

♡ 허진 요엘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9월15일(목요일) 추석, 아침8시30분, 저녁 7시30분
- 미사: 합동 위령미사
- 미사 중 분향 및 짧은 연도
- 미사예물: 사무실에서 접수 중

◆ 본당 전진 성사 안내

- 일시: 2016년 9월11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오스카 솔리스주교님
- 전진 교육: 영성피정 이수자
(6월2일~6월5일, 신앙성숙과 채신을 위한 영성피정)
- 전진신청 마감: 8월 28일(주일)
- 문의: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부스를 분양합니다.

- 9월 18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97-7770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교육

- 일시: 9월 10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장소: American Martyrs Catholic Church
624 15th Street, Manhattan Beach, CA 90266

◆ 배론 청년회 운영 자금 및 활동 예산 모금을 위한 펀드레이징

- 일시: 오늘주일(28일) 11시 미사 후
- 팔방수: 1개당 \$4, 3개 \$10

* 성모 회에서는 배론 청년회를 지원하기 위해 친교 자리 점심을 봉사해주십시오. 이익금은 배론 청년회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집니다.

◆ 2016-2017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3명
- 한국학교: 초급 또는 중급 교사 1명
- 밴드부 교사 1명
- 학생 전례부 교사 1명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St. Margaret Mary Lomita Fair Volunteer 모집

St. Margaret Mary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인원의 봉사자가 필요한 큰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중 시간이 허락되시는 교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봉사 일정 및 시간: 9월 09일 금요일 오후 5~11시
9월 10일 토요일 오전11~오후11시
9월 11일 일요일 오후12시~9시

- 모집 인원: 각 분야 별 00명

* 고등부는 Volunteer Certification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9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20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 모으기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28일: 성모회 주최 배론 청년회 기금마련(비빔밥 \$3)
- 9월4일: 소공동체(토서봉사): 김밥(\$4), 컵라면(\$2)

지난주 우리들의 성성

교무금	국세찬	권태만	김교복	김대우	김상기	김옥찬	성전헌금	국세찬	권태만	김교복	김대우	김상기	김재성										
	김원규	김제성	김정아	김진우	김현숙	김형순		김현숙	박광자	박정자	신순철	양영관	윤화경										
	류현옥	박경자	박경주	박광자	박정자	신순철		이상곤	이우성	이재정	이효세	정경자	정정현										
	양영관	오상준	오신재	육근주	윤화경	이상곤																	
	이우성	이재정	이중선	이효세	정경자	정정현																	
	최희숙	홍석인																					
															합계 : \$1,515								
합계:\$ 3,285																							
주일미사헌금 :\$2,538						성모승천대축일: \$624						감사헌금: \$900(신순철, 전정일, 황인종)						장소대여료: \$250					

◆백삼위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14일~8월 28일 매주 일요일 (총 3 회)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남가주 소식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 내용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및 봉헌 갱신미사
- 일시 : 9월 8일(목) 오후 7시부터
- 장소 :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
(637 S. Kingsley Dr, L.A90005)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지도 신부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묵주, 봉헌공책, 미사준비
- 문의 : 이정화 헬레나☎(323)899-3202
또는 각 성당 셀 회장

◆제 17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일시 : 2016년 9월 11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주소 :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가 원하면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 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 연락처 :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속에서 하는 9개월간의 영신수련

- 기간 : 2016년 9월~2017년6월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Loyola Institute of Spirituality
480 S. Batavia,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213) 507-1144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KYCR New Life in the Holy Spirit Seminar

- 일시 : 9/2 (Fri) 4pm - 9/4 (Sun) 4pm (Labor Day Weekend)
- 장소 : 꽃동네 Kkottongnae Retreat Center
37885 Highway 79 S. Temecula, Ca 92592
- 회비 : \$150
- Contact: Jeane Yoon*(한국어/Eng) 562-676-7933,

소공동체 8 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유철희 바오로 8/10(수) 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릭 8/13(토) 오후6시30분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인식 토마스 8/20(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김인성 스테파노 8/13(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8/14(일)11시미사후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용 임마누엘 8/19(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8/9(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황지영 안젤라 8/21(일) 오후 6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매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8/14(일) 오전11시De Portola Park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남해나 베네딕다 8/12(금) 오후 7시 성당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8/20(일)엘림온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8/13(토) 오전1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8/9(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종종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기상캐스터가 왜 필요한가? 십 년 뒤, 삼십 년 뒤에도 이것은 존속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날씨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오늘 날씨’라는 검색어를 치기만 해도 정보가 넘쳐나는데, 기상캐스터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 물어왔던 것입니다. 만연한 정보와 그것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기술력에 밀려 점점 제 직업의 입지와 중요성이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이 비단 기상캐스터라는 직종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고 위협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라는 인공 지능이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은 신호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공 지능은 소셜 창작과 같은 예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컴퓨터는 내일 기온, 예상 습도와 풍향 등을 수치화해 알려줄 수는 있지만,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 갈 때 우리 주위의 풍경이 어떤 식으로 미세하게 얼굴을 바꾸고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기상캐스터는 방송 원고를 직접 작성하는데, 원고를 통해 봄꽃이 진 자리에 어느새 녹색 잎이 돋아나고 초여름 햇살이 신록을 싱그럽게 하기 시작했음을, 그렇게 조금씩 여름이 시작되고 있음을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은 오직 사람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날씨에 따라 특히 그것에 취약한 계층이나 연령대가 각기 다름을 인지하고, 폭염 예보를 할 때 주위에 냉방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없는지 살펴달라는 당부하는 것 역시 사람인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타인과 감성을 공유하는 것, 타인의 무사 안녕을 빌어주는 것, ‘기도’와 ‘신앙’ ~~역시~~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밤 한 주가 지나갔고,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된다는 단순한 사실에 감사하며 나와, 사랑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여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수한 흔들림 속에서도 나뭇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이세라 진이 아가다 / KBS 기상캐스터

[길을 찾는 그대에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늘 반성하면서도 틈만 나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럴수록 버리라는 성경 말씀은 더 무겁기만 합니다. 더 가지고자 하는 삶은 나쁜가요?

☞ 가진다는 것은 외적인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버리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들에는 대개 땅이나 물건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거나,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 사랑하는 연인 등 사람이거나, 그도 아니면 명예나 권력과 같은 사회적 욕망,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 이 가운데 하나를 마지막까지 꼭 부여잡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공공이 따져보면 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실상 버리지 않고 꼭 쥐고 간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붙잡고 살고 싶은 것들이 처음부터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우연히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진 무상의 선물이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복음의 버리라는 가르침은, 영똥한 것을 붙잡고 살면서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경고요, 어차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니 그걸 원 소유주 하느님께 맡겨놓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버림과 채움은 서로 반대말이 아닙니다. 많이 버려서 비어있을 때에 가장 충만하다고 느끼는, 오묘한 역리(逆理)가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교리상식]

노자 성체란 무엇인가요?

☞ 노자(路資) 성체는 라틴어로 비아티쿰(Viaticum)이라 하는 데 ‘긴 여행을 위한 준비’라는 뜻입니다. 노자 성체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삶과 죽음의 두 가지 긴 여정에서의 영적인 준비, 곧 세례와 마지막 영성체를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죽을 위험에 놓인 신자에게 마지막으로 영해 주는 성체만을 뜻합니다. 노자 성체의 경우에는 공복재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노자 성체는 병자성사처럼 한 번 이상 영할 수도 있습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 「미사 전례」

동생을 팔아 넘긴 요셉의 형들

야콥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콥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로 팔려가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된 것은 요셉이 꾸 꿈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7,1-11

야콥에게 요셉은 늦둥이 아들이었고 더구나 끔찍하게 사랑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랑스러웠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의식주에 관한 것을 편애하면 더 감정적으로 상처가 됩니다. 어느 날 야콥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요셉을 멀리서 보고 나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행동이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7,12-36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 간 곳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서도 손으로 꼽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셉과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의 재회와 용서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41,39-45,28

부모의 편애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가장 못마땅한 것은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제에게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귀한 존재에서 낯선 이국 땅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착한 마음을 지니고, 하느님의 마음에 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특히 요셉은 분명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만은 홀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에 던져 버리고, 그 아이에게 ()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을 살려 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창세 37,22)

요셉은 눈을 들어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을 보며, “전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막내아우가 이 아이냐?” 하면서, “얘야, 하느님께서 너를 ()여겨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아우에 대한 애정이 솟구쳐 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일,
쉬웠습니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일,
정말 쉬웠습니다.

세상엔 쉬운 게 이렇거나 많은데,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 거라 합니다.

미운 거 미워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미운걸 사랑하기까지 해야 한대지요.

정말이지 미운 거 열렬히 한 번 미워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런 부대낌 없이.

-이영 아네스-

()이 나오려고 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창세 43,29-30)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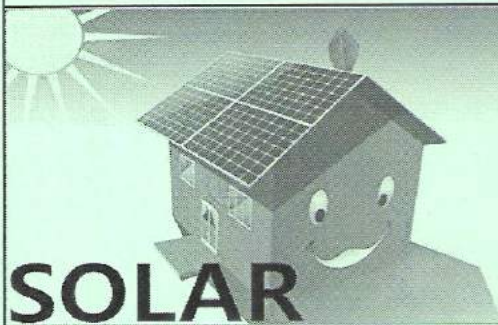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재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영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TO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켈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TV,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